

관세청, 세계관세기구(WCO) 기술 전시회 유치 ... 2027년 인천 송도서 개최

-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서 「2027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 인천 송도 개최 공식 발표, 전 세계 187개 회원국 대상 본격 홍보 시동
- 정부의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전략과 연계해 관세기술 분야 국제 협력 확대 ... 102억 원 규모 경제 파급효과 기대

관세청은 현지 시각 6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CO) 총회(Council)*에서 「2027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의 대한민국 유치를 공식 발표하고, 차기 개최국으로서 본격적인 국제 홍보에 나섰다.

* 187개 회원국 관세당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글로벌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은 세계관세기구(WCO)의 대표 행사이자 최대 규모의 기술 분야 국제행사다. 세계 각국의 관세당국과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및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세행정의 최신 기술 동향과 국제표준을 논의하고 관세 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가장 최근 행사는 2026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되었으며, 109개국에서 2,125명이 등록하고 60개 이상의 전시 부스가 운영되는 등 세계 관세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차기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27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유치는 지난 2008년 서울 개최 이후 19년 만의 성과로, 정부의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전략과 연계해 인공지능(AI) 기반 관세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쾌거는 관세청과 한국관광공사가 유치 추진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다. 한국관광공사는 런던지사를 통해 세계관세기구(WCO) 본부와 적극 소통했으며, 지난 4월 방한 실사단 초청과 국내 주요 MICE* 인프라 답사 등을 전폭 지원하였다.

* 4가지 주요 비즈니스 관광 분야 산업: Meeting(회의), Incentive Travel(포상여행),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행사가 전 세계 관세당국과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의 방한을 촉진하여 숙박·교통·관광·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02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MICE 개최효과 분석

양 기관은 2027년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관세행정 역량과 혁신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임주연 (042-481-3210)
		담당자	사무관	강홍익 (042-481-3215)
담당 부서	한국관광공사 컨벤션팀	책임자	팀 장	박진호 (033-738-3291)
		담당자	차 장	김학래 (033-738-3297)

